

이전 공공기관 · 지역사회 상생 도모

‘지역청년 채용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채용정보 등 공유

전북도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청년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와 고용노동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6개 기관, 전북대 등

5개 대학교 취업관계자와 대학생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지역청년 채용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도내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및 취업관계자, 예비구직자인 대학생이 모여, 직접 공공기관별 채용 현황 및 채용정보, 기관채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을 서로 공유하였다.

이날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우리 공공기관이 지역청년을 적극 채용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방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지역청년 채용 확대에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도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스펙을 뛰어넘어 전문능력을 갖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대학생들의 자기역량 강화에 많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청와대 ‘우병우 안고 간다’ 언론누설 발미 특별감찰 ‘역공’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감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찰 진행 상황의 언론 누설 의혹을 발미로 역공에 나섰다.

이는 당분간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특별감찰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현직 민정수석이 감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이 감찰관의 전격적인 수사의뢰에도 줄곧 지켜왔던 침묵을 깨 것인데 청와대는 우 수석을 조사한 특별감찰관에게 칼 끝을 겨졌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 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 둘째는 특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감찰에 수사의뢰를 할 의도였다는 의혹이다.

앞서 SNS 대화 내용을 인용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처음 제기한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감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이 감찰관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므로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이 감찰관의 전격적인 수사의뢰와 관련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뉴시스



노사민정협의회 지난 19일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전라북도의 실업난 극복과 노사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과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대상을 선정하는 등 노·사·민·정이 한마음이 되어 '2016년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26일 개최

서울 한양대서... 혁신 성과센터존, 보육기업 제품 등 대표성과 전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이하 전국 혁신센터) 축제의 장인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오는 26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게 되는 페스티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6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스타트업 투자설명 및 협약식, 축하 퍼포먼스가 포함된 개막식

을 시작으로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및 전국 혁신센터 성과 체험, 청년채용의 날, 스타트업 행복나눔, 청춘 락(樂) 페스티벌, 청년 푸드트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혁신 성과센터존에서는 전국 혁신센터가 독립적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주요 보육기업 제품과 함께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지역 특성(테마 사업)과 대표성과를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 나눔과 보육기업 제품 홍보를 연계하여 페스티벌 현장에서 보육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스타트업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혁신센터 성과 체험의 미래기술체험존, 똑딱!공작소, 대학생 미디어 해커존, 대학생 마케팅, 아이스 뷰티핀 등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혁신센터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게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은 전국 센터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오늘부터 ‘을지연습’ 전북 전역서

25일까지 진행... 24일 민방공 대피훈련도

‘2016 을지연습’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전역에서 진행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경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첫날인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전시작전 편성과 행정기관이 동, 전시차량기구편성, 주민대피 실제훈련 등이 이뤄진다.

24일에는 을지연습과 연계된 민방공 대피훈련도 진행된다.

특히 군 차량 비상차로 확보와 군경 합동 교통통제 등을 비롯해 방독면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가까운 대피소 찾기 등 주민이 참여하는 훈련이 병행된다.

또 을지연습 기간 도청에서는 35사단 장병 보급품 및 안보관련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때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는 만큼 연습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10월까지 하반기 정기 종자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불법·불량종자 유통 차단 위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경일)은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하반기 정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종자 유통조사는 불법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과수모목, 채소종자, 버섯종균, 쪽파종구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며, 중점 조사 항목은 종자일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 미표시 및 밭아보증시한 경과 종자 판매 등이다.

유통조사 중 법규를 위반하는 종자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종자산업법 위반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법 재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종자 구입 시 포장재에 품종명, 포장일, 유효기간, 발아율, 종량 등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면서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참여연대 “수사대상자 민정수석 유지 어불성설”

참여연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감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

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문제는 감찰의 수사 의지다.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건’이만 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며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